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

태국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는 20 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문의: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발 신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mailto:khis21@hanmail.net) / 참여연대 신미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mailto:pspdin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태국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20. 10. 14. (총 8 쪽) \*국/영문 성명 포함

## 보 도 자 료

### 태국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10. 14. (수) 오전 11:00, 주한 태국대사관  
앞

#### 1. 취지와 목적

- 올해 2 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실시된 총선을 통해 제 3 당으로 떠오른 퓨처포워드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이에 태국 청년들을 주축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시위는 점차 확대되어 지난 9 월 19 일에는 10 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방콕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태국의 민주화 혁명 기념일인 오는 10 월 14 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 유럽 외유를 즐긴 왕실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 기득권 엘리트 세력의 불공정한 행태에 태국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그동안 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왕실 개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한편 10 월 14 일 시위를 앞둔 10 월 13 일에, 2017 년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파이 디오딘 씨를 체포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태국 정부의 탄압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개최되는 태국 시위에 함께 하기 위하여 한국의 20 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주한 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에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당국의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한 차노크난 씨가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차노크난씨외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시민이 함께 세손가락을 들어올리며 구호를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한/영)을 주한 태국 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2. 개요

- 제목 : 태국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10.14.(수) 오전 11시 / 주한 태국대사관(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42)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언 1 : 태국 난민에게 듣는 태국 민주화의 의미 (차노크난 루암삼)
    - 발언요지: 한국의 사회단체들이 태국대사관앞에 함께 모여 태국의 시위를 지지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태국은 2014년 군부쿠데타 이후에 계속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2019년 실시된 총선 역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부가 자의적으로 개정한 헌법때문이다.
  - 발언 2 : 전국 YMCA 연맹 양다운 팀장: 태국의 국왕을 비롯한 태국집권세력이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태국 시민들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을 규탄하며, 한국시민사회도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성명서 낭독 (해외주민운동연대 이다영 간사/참여연대 신미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발언하는 태국 정치난민 차노크난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화 헝거게임에서 나온 세손가락 표시를 같이 하고 있다. 이 표시는 홍콩과 태국에서 독재에 저항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 [공동성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지난 9월 19일 수만 명의 태국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다. 10대, 2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지난 2월 퓨처포워드당 해산 이후부터 시위를 이어왔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국 시민들을 광장에 모이게 한 것은 불공정한 헌법으로 권력을 잡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였다.

우리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태국 군부는 잇따른 정치개입과 잦은 쿠데타로 시민들의 열망을 묵살해왔다. 특히 마지막 쿠데타로 기록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하고 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현 집권 세력은 2017년 군부의 정치개입을 보장하도록 헌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3월 실시된 총선에서 프라윗 짠오차 총리에게 재집권의 길을 열어주었다. 쿠데타 이후 5년 만에 어렵게 열린 선거였으나 쿠데타 주역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 것이다.

이들은 제 3 당이 된 퓨처포워드당의 해산 명분을 찾기에 급급했고, 결국 지배 엘리트 세력 편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 온 헌법재판소를 이용해 당을 해산시켰다.

그뿐만이 아니다. 와짚라롱콘 현 태국 국왕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태국 시민들의 삶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줄곧 독일과 유럽 등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검찰은 2012년 뺑소니 교통사고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뒤 해외 도피 중인 태국 재벌 '레드불' 창업주 손자를 불기소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왕실 모독죄', '선동죄' 등과 같은 반민주적 악법으로 탄압해온 태국 집권층이 부유층 자제의 중대 범죄에는 눈을 감은 것이다. 게다가 지난 6월 군부의 탄압을 피해 캄보디아로 피신했던 태국 활동가가 괴한에게 납치된 뒤 '강제실종' 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는 2014년 쿠데타 이후 해외로 피신한 활동가들이 강제 실종되거나 사체로 발견된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태국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태국 청년들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시위 조직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헌법개정을 포함한 민주주의 회복뿐 아니라, 태국 역사에서는 전례 없던 왕실 개혁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10월 14일, 태국의 중요한 민주화 운동이었던 1973년의 '10월 14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며 또다시 광장에 모여 프라윗 총리 사퇴, 헌법개정, 왕실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그 동안 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아시아 전역에 큰 희망이 되어왔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열망과 시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태국의 청년들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이미 한국 사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이고 지금도 직면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태국 시민들이 들어 올린 세 손가락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한다. 태국의 시위에 세계가 주목하고 한국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이유이다.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태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이다.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협력 상대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평화, 사람, 번영(3P, peace, people, prosperity)을 핵심 원칙으로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문화와 관광 교류의 증가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 협력할 때만이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태국 정부에 요구한다. 2016 년 말부터 2017 년 봄까지 한국 시민들이 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외친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메시지였다. '태국은 국왕의 것이 아니다' 라는 태국 시민들의 외침과 맞닿은 한국 시민들의 외침이 결국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로 귀결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태국 정부는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고 시위대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0 년 10 월 14 일

공익법센터 어필/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녹색당/녹색당 국제특별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아디/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서울지부/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YMCA전국연맹/한홍민주동행/해외주민운동연대 (20개 단체)

[Joint Statement]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We support demands for democracy and reform by Thai people.**

Tens of thousands of Thai people gathered at the Democracy Monument on September 19th. The demonstrators who are mainly led by teenagers and twenties have been protesting since the dissolution of the 'Future Forward Party'). The reason why the citizens gathered in the square in spite of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was rage against the current Thai ruling forces, who seized power under the unfair Constitution and disregarded people suffering from COVID-19 Pandemic.

The histories of Thai people' democratic movements and their wishes longing for democratization of Thailand have been widely recognized by the world. However, Thai military forces turned away from citizens' strong desire by continuous political interventions and frequent coups. Since the latest coup in 2014, democracy in Thailand has been even more deteriorated. It's a great set back. The current ruling forces seizing power by the coup revised the Constitution in 2017 to guarantee the military's intervention in politics and pave the way for Prime Minister Prayut Chan-o-cha to win again the general election in March 2019. Although it was the first election in 5 years after the coup, the leading forces) of the coup regained the power). They were busy seeking pretexts for dispersing the 'Future Forward Party', which has become the third party. Eventually, by utilizing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made political judgements on the side of the ruling elites, they dissolved the party. Any yet, this is not the end of the story

Maha Vajiralongkoran, the Thai King, has long been infamous for his (super)-luxurious life spent mostly in Germany and also parts of Europe. This has been despite the fact that ordinary people's lives in Thailand have faced extreme challenge and difficulties due to Covid19 Pandemic. Furthermore, the prosecutor in Thailand has dropped all charges against Vorayuth Yoovidhaya, the grandson of the Thai conglomerate 'Red Bull' founder. The case, where the grand son has fled abroad after killing a police officer in a hit-and-run incident in 2012, has become a source of nation-wide anger especially among the youth and also the ordinary citizens.

While extremely tolerant towards the wealthy child and their crimes, the ruling class of Thailand by contrast has way more often use the criminal code 112 (or known as 'lese majeste') and the criminal code 116 (or "sedition") against those who are critical on the authority. Furthermore, a Thai activist who fled to Cambodia to avoid militarists' despotism was kidnapped by an unidentified assistant and has been in enforced disappearance in June. It is one of the cases that activists fleeing to abroad have been in enforced disappearances or were found dead.

Therefore, we would (firmly) state that growing anger and rage of Thai people towards the undemocratic, oppressive regime are totally legitimate one. Demonstrations utilizing social media also have become active around young Thai people. They demand not only restoration of democracy inclu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also reform of monarchy, which demand in particular shock many because it's unprecedented. And today, October 14th, And today, October 14, is the day of commemorating 'the October 14 Uprising (Day of Great Sorrow)' in 1973, which is the important pro-democracy movement in Thai history, Thai citizens are going to gather in the square again and hold protests on a large scale demanding resignation of Prime minister Prayut,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reformation of royal family.

Thai people's uncompromising will for democracy has become an inspiration and hope throughout Asia.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fully in support of Thai citizens' longing for democracy and reformation and demonstrations. The reason why young people and citizens in Thailand are enraged and steps out into the streets was already experienced in Korea during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nd is tasks that Korea is now facing. The three fingers raised by Thai citizens symbolize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which can never be abandoned even in COVID-19 Pandemic. It is the reason why the world pays attention to demonstrations of Thailand and Korean civil society supports them.

We also demand to Korean government. Thailand is a core country in the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Not only economics of country partnership but also democracy and human rights issue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in implementing 'New Southern Policy'. President Moon Jae-in's 'New Southern policy' that peace, people and prosperity(3P) were defined as

core principles will become effective only when countries cooperate for the promo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s well as increase in culture and tourism exchange.

Finally, we demand to Thai government. From the end of 2016 to the spring of 2017, the message Korean citizens holding candles shouted was that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in the cold of midwinter.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outcries of Korean citizens which meet outcries of Thai citizens, "Thailand is not the king's.", resulted in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and change of regime. Thai government should ensure the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immediately stop suppressing protestors and opposition parties. Above all, the government should listen to desperate voices of citizens who gathered at the Democracy Monument despite difficult situations due to COVID-19 Pandemic.

October 14, 2020.

Signatories (Total 20 organizations)

**'BUTTLE' Chungnam Human Rights Educators**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sian Companions Against Brutality**  
**Asian Dignity Initiative**  
**Green Party of Korea**  
**Hongkong-Korea Civic Alliance for Democracy**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International Committee of Green Party Korea**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Migrants Center Friend**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Organization for Anti-Conscription (Seoul Branch)**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efugee Rights Center**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Pax Christi Korea**